

조선시대 고전소설 바탕 음악극 '설공찬전'

전북문화관광재단 · 문화포럼나니레,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펼쳐

조선시대 금서로 지정됐던 고전소설이 창작 음악극으로 재탄생해 관객들을 만났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026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포럼나니레가 지난 22일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창작 음악극 '설공찬전'을 공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에 개발한 우수 공연작품을 지역 공연장에서 다시 선보이는 '우수작품 레퍼토리' 유형으로 추진됐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공찬전'은 조선시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순창의 지명과 가문 이야기를 결합한 창작 음악극이다. 원작의 핵심 소재인 빙의와 저승 세계에 풍자와 해학을 더하고,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를 결합해 고전을 현대적인 무대로 재해석했다.

작품은 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품은 설공찬이 저승차사의 도움으로 사춘동생 설공침에게 빙의하면서 시작된다. 이승으로 돌아온



'설공찬전' 포스터

설공찬은 자신이 경험한 저승의 이야기를 사

람들에게 들려준다.

작품 속 저승은 이승과 달리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생전 쌓은 덕과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신분제와 성별에 따른 차별 등 현실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설공찬의 빙의를 매개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두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열라국 연희와 저승 심판 등 주요 장면에서는 판소리와 전통음악,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작품의 극적 분위기를 살린다.

공연 전반에는 풍자와 해학을 담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문화포럼나니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설공찬전'을 순창을 대표하는 지역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공찬전과 설씨부인, 신경준 등 순창과 관련된 인물과 이야기를 공연예술로 재해석하는 '설설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고전 서사를 시리즈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연 레퍼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조선세프 한상궁-전주비빔밥' 공연

전주 음식문화 · 이야기 담아낸 뮤지컬 28일~11월 13일 9회 진행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전주의 음식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낸 뮤지컬 '2026 조선세프 한상궁-전주비빔밥, 그 맛의 완성'이 오는 28일 전주에서 막을 올린다.

뮤지컬 '조선세프 한상궁'은 2023년 '그 맛의 시작'을 시작으로 2024년 '그 맛의 여정', 2025년 '그 맛의 비밀'에 이어 올해 '그 맛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전주의 대표 지역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 공연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주대사습청 야외무대에서 모두 9차례 진행된다. 공연은 매회 오후 7시30분 시작하며, 비가 올 경우 전주대사습청 실내무대로 장소가 변경된다.

올해 작품에서는 한상궁과 대립하는 '최상궁'이 새롭게 등장해 갈등 구조를 강화한다. 한상궁이 전주의 식재료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도 보다 밀도 있게 그려진다.

새로운 뮤지컬 넘버도 추가된다. 판소리와 무용, 퍼포먼스에 현대적인 뮤지컬 음악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의 흥을 더하는 '남문장터 삼촌사'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배우들이 출연해 뮤지컬 배우들과는 다른 색깔의 소리와 노래를 선보이며, 군무와 퍼포먼스를 더해 볼거리를 높인다. 공연 제작에는 지역 창작진과 공개 오디



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참여한다. 린과 이브(브) 최원창 대표가 총괄 기획·제작을 맡고, 김소라 작가가 각색과 예술감독을 담당한다. 연출은 뮤지컬 삼촌사, 할란카운티, 몬스터 등에 참여한 유병은 연출이 맡는다.

출연진은 뮤지컬과 판소리, 무용, 퍼포먼스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상궁 역에는 전태경과 나서영이 더블 캐스팅됐다.

공연은 오는 8월 28일, 9월 4일·11일, 10월 2일·16일·23일·30일, 11월 6일·13일 등 모두 9차례 열린다.

티켓은 네이버와 NOL 티켓, 공연 당일 현장 티켓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장 티켓부스는 공연 당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조기 매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오상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모보경 명창 '정정렬제 춘향가' 9월 5일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경주)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모보경 명창의 '정정렬제 춘향가'를 선보인다.

모보경 명창은 정정렬·김여란·최승희로 이어진 정정렬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했으며, 현재 전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이자 사단법인 정정렬제 최승희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정렬제 춘향가는 정정렬 명창이 기존 춘향가의 장단과 조를 창의적으로 변주하고, 극적 구성과 사설을 새롭게 다듬어 완성한 판소리로, 장단의 박자에 다양한 사설을 화려하게 불

리는 부침새와 정교한 기교가 특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정성 짙은 소리와 안정된 성음, 절제되면서도 우아한 발림을 통해 정정렬제 춘향가의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전북 무형유산 판소리장단 보유자인 조영안 명고가 장단을 맡는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이고 예매는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동리창극단 기획공연 '1872 고창 히어로' 27일 공연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신유섭)와 동리창극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제1회 기획공연 유쾌한 창극 '1872 고창 히어로(부제: 소리의 성벽을 쌓아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군비를 지원해 제작한 공연으로, (사)동리문화사업회와 동리창극단이 주관한다. 고창음성에 척화비가 세워지던 1872년을 배경으로 한다. 서구 열강의 침탈 속에서 모양성 보수 노예가 사달려야 했던 백성들의 울분을 동리정사 예인들이 풍자와 해학이 담긴 '소리'로 풀어 안고 위로하는

과정을 담았다. 작품에는 동리정사의 큰 어른 신재효, 조선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 명창 박만순 등 고창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해 극의 몰입도를 더한다.

이번 작품은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결합해 온 오진욱 연출가가 연출과 각색을 맡았고, 최기우 작가가 대본을 집필해 탄탄하고 밀도 높은 스토리를 구축했다. 여기에 흥정의 음악감독이 작품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판소리 연구의 권위자인 최동현 교수가 정교한 고증과 감수를 맡아 힘을 보탰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추담 전통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제1회 추담 전통문화 학술대회 열려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추담 전통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추담제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의 주관으로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추담제 판소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정지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악·역사·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추담제 판소리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 부안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전통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 전통문화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추담 흥정택 선생의 예술정신과 추담제 판소리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지역 전통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지속 계승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치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